

정기명 여수시장, 우주항공산업 현장서 남해안남중권 미래 모색

경남 사천 KAI 항공기개발센터서 개최
2024년도 추진사업·각종 현안 등 논의

정기명 여수시장은 최근 경남 사천 KAI 항공기 개발센터에서 개최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협의회장 김철우 보성군수) 제23차 정기회에 참석해 2024년도 추진사업과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에 추진하게 될 공동사업(8개 신규사업과 9개 계속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남해안남중권 지역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 협력사업 공동모색, 협의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발전포럼 개최 ▲이순신 호국 순례길 역사문화 탐방 ▲친환경농업인 대회 ▲영호남 합창 페스티벌 ▲시·군 동호회 교

류행사 ▲농·수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판촉 ▲농어촌일손돕기 교류활동 등 총 7건의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특히, 농·수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판촉 행사는 내년 초 여수시에서 추진기로 결정하고 생활체육교류 대축전을 비롯한 문화예술제, 광역시티 누비고 투어 등 계속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다져 남해안남중권의 문화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향후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9개 시군이 상생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우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해안남중권은 남해안시대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아름다운 자연, 문화관광 유산을 보유한 지역으로 지역 상생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눈이 즐거운 행복한 하루, 광양주말여행’

광양시가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는 12월, 따뜻한 겨울을 여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남도한바퀴 ‘눈이 즐거운 행복한 하루, 광양주말여행’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광주 유스퀘어(8시 50분)에서 출발하는 광양주말여행은 광주송정역(9시 20분)을 경유해 광양 원도심의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을 관람한다.

이어 서천변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서 점심을 즐긴 후 옥룡사동백나무숲, 김시식지, 배알도 섬 정원 등 대표관광지를 투어하고 유스퀘어(18시 25분)에 도착하는 코스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2023. 기획전시 송필용 작가의 ‘물의 서사’, 황영성 초대전 ‘우리 가족 이야기’, 아트&테크 : 진동하는 경계들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선보인다.

옥룡사동백나무숲은 터만 남은 옥룡사지와 뻗뻗하게 둘러선 1만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실현한 곳으로 나뭇가지 새

로 비쳐 드는 별빛이 인상적이다.

광양김시식지는 세계 최초로 김을 양식한 역사와 장소를 기리는 공간으로 김이라는 명칭의 탄생 배경 등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다.

망덕포구는 윤동주의 육필시고를 간직한 정병옥 가옥을 비롯해 시 정원, 시 조형물 등 윤동주의 시 정신이 흐르는 공간으로 포구의 낭만은 답이다.

배알도 섬 정원은 바다 위 낭만플랫폼으로 별해는다리, 해맞이다리 등 해상보도교 위에서 맞는 겨울바람이 상쾌하다.

이용요금은 2만4천900원(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이며 온오프라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기타 안내 및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citytour.jeonnam.go.kr), 남도한바퀴 콜센터(062-360-8502), 남도한바퀴 카카오톡 채널 등을 이용하면 된다.

/최종민 기자

구례 간전면, 명사 초청 강연

구례군 간전면은 최근 다목적면민회관에서 ‘100세 시대, 농업인의 인생 설계와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가 강사로 나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령별 노후 준비 방법과 인생 설계,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실천 팁 등을 공유했다.

강 대표는 미래에셋 금융그룹 부회장, 트러스트자산운용 연구포럼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노후 설계 전도사로서 전국을 누비며 전 국민 자산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주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면민회관을 가득 채웠다.

강연회를 주최한 주민자치 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은 “농업인 100세 시대에 대응하고자 노후 대비 전문가 강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창환 면장은 “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에 우수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경석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순천시민이 함께하는 ‘2023년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도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서동욱 도의장, 정병희 순천시시장, 도·시의원, 각 기관·단체장과 여성, 청년 등 250여 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순천시 제공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한 ‘순천시민과의 대화’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순천시민이 함께하는 ‘2023년 도민과의 대화’를 최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노관규 순천시장, 서동욱 도의장, 정병희 순천시시장, 도·시의원, 각 기관·단체장과 여성, 청년 등 250여 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특히, 순천대학교 학생회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의 캐리커처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순천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선정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홍보영상 상영, 도·시정보고, 도민과의 대화,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영록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직접 주재해 건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최종민 기자

곡성멜론주식회사 ‘금실딸기’ 수출 시작

곡성군은 최근 곡성멜론주식회사에서 수확한 금실 딸기 100상자(1.5kg) 150kg를 경남 산청군 농업회사법인 조이팜에 납품함으로써 수출을 시작했다.

이번에 수출한 딸기는 곡성멜론주식회사(대표 이선재)에서 생산한 ‘금실’ 품종으로, 경남농업기술원이 지난 2016년 개발했으며, 당도가 높고 단단해 수출에 특화된 품종이다. 기존 곡성군의 딸기는 ‘설향’이 수출품종이었으나, 올해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을 통해 품종을 변경해 ‘금실’품종으로 재배, 수출하게 됐다.

‘금실’은 저장성이 뛰어난 ‘매향’과 당도가 높고 과가 큰 ‘설향’을 교잡해 만든 품종으로, 현재 수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내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

한 곡성군과 곡성멜론주식회사 참여농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지난 7월 26일에는 금실딸기 품종 개발자인 경남농업기술원 윤희숙 박사의 ‘금실딸기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곡성멜론주식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서 2017년에 지정돼 딸기 및 멜론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선재 대표는 “올해 첫 금실딸기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60여톤을 주요 수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수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딸기 수출을 시작으로, 딸기 농가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가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 사단법인 영광법성포 굴비 보존협회 회원업체
· 전라남도 지정 영광굴비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
· 영광수협 중매인 18년

축가네 경성굴비

2代째 이어온 전통방식의 名品굴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 경 룰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룰

